



‘자비의 온도’ 뜨겁다

경제 한파에도 불자들 기부는 증가

“이번 달부터 커피값을 아껴 후원금 5000원을 더 내겠습니다. 요즘 같을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을 따라 보시하면서 살아야죠.”

자녀들의 이름으로 10년째 남몰래 기부해오던 권미혜(47)씨는 올해 또한 구좌를 늘리기로 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남몰래 자비보시행을 펼치는 불자들의 소액기부는 오히려 늘어나 훈훈한 미소를 더한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올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동안 기업 후원금인 ‘큰손’은 줄었지만 개인 소액 기부금인 ‘작은손’이 늘어 301억 96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부문화 확산이 나서 ‘작은손’에서 ‘큰손’까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기부활동이 저조할 것이라 예상하던 불교계 복지단체들은 기부증가에 IMF관리체제 당시 실시 일반(十一般)의 이타심을 떠올리며 반기고 있다.

조계종만 해도 개인기부금과 기업 기부금이 모두 크게 늘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02-723-5101)은 개

인기부금이 약 10%, 기업후원금이 약 87%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교계로 대표되는 대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도 있지만, 난치병어린이 돕기 3000배 정근(1배 100원) 등 기획사업과 CMS 등 소액기부 홍보, 기업연계 강화가 있어 가능했다는 게 관계자들 중론이다. 강규식 후원담당 주임은 “2009년에는 현재 진행중인 청소년 의지나눔Sharewill캠프 등을 통해 기업후원을 더욱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태종도 기업기부금이 크게 증가했다. 기부액 증가율은 2007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천태종복지재단(02-873-3405)이 2008년 4월 기업은행과 제휴해 신도증을 겸한 ‘천태자비카드’로 개인 및 기업기부를 유도한 영향이 컸다. 천태종 윤금선 후원홍보팀장은 “카드사용 적립액이 천태종 복지사업으로 활용되고, 기업은행도 사업영역을 넓혀 상부상조다. 올해 기업은행 측은 달력 등 홍보 제작비 및 물품지원에 3억원 넘게 후원했다”고 밝혔다.

진각종은 개인기부가 줄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진각복지재단(02-942-0144)의 복지사업후원결

사조직 ‘만월회’가 큰 역할을 했다. 만월회는 재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1인당 1만원 모연운동을 펼치는 후원단체다. 먼저 가입한 회원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의 새로운 후원 문화를 개척했다. 진각복지재단 조경희 부지사는 “경계가 어려워져도 큰 변화가 없이 매달 1300여 만원이 모금되는 등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계 기부문화 정착에는 올해 9월 30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02-737-9595)도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창립 당시 각 사찰에서 5억여 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 8억 1960만원의 기부금이 담뿍했다. 아름다운 동행 원석준 팀장은 “‘아름다운 동행’은 불교TV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을 통해 사찰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의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일선복지현장에 배분할 예정이다. 불교의 보시를 기부문화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부 증가에도 아직 갈 길은 멀다. IMF관리체제 당시 후원금이 대폭 증가했지만, 그 이후 다시 줄어든 경향이 있다. 늘어난 후원금을 빈부격차와 소외계층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해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은행을 중시하는 기부 변화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다 큰 세제혜택을 얻어내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국회 상정중인 복수의 공동모금단체를 두게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타종교나 NGO로 출발한 월드비전, 아름다운세상 등 단체는 40년 넘는 긴 역사를 바탕으로 연간 수백억단위 기부금을 모금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복지사업장은 “기부와 복지 활성화에는 인프라, 프로그램, 후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불교계 기부시스템은 타종교에 비하면 역사가 짧다. 각 종단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JIS, 로터스월드,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많은 불교계 단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이상언 기자

동국대 ‘총장’ 수난시대?

서울캠 오 총장 불신임·경주캠 총장 직선 요구

조계종립 동국대가 내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 유덕기)가 오영교 총장 불신임을 결의한데 이어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임배근)도 캠퍼스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12월 9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 총장 불신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전환을 결의했다. 오 총장 불신임 결의는 10월 1일 시총회에서 발표된 설문결과에 따른 조치다.

교수회장 유덕기 교수(식품과학부)는 “오영교 총장의 자질과 능력에 한계를 느낀 조치”라고 말했다. 교수회가 오 총장을 불신임한 이유는

△총장 능력과 자질 미흡 △일방적인 정책 진행 △재정적 기여 부족 등이며, 로스쿨 탈락에 따른 책임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국대 측은 “후원의 밤” 등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으나, 교수회측은 “약정은 약정일 뿐 모금액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4년간 4명의 캠퍼스총장이 임명됐다”며 “4년마다 재단이사회 구성이 바뀌는 구조에서 (학교가) 특정개인의 편리 등에 따라 운영되기보다는 (직선 등)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노인(老人)? 우리는 노인(老人)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임문)는 12월 10-11일 서울 사출공영전 허리우드 클래식에서 'JPI와 함께 하는 2008 탑골대동제 열혈노인(老人)'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동아리, 문화교실, 탑골문화학교 참여 어르신 1000여 명이 진도복춤, 마술, 풍물놀이, 재활용 악기 만들기 등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선보이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된다

강창일 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온 관행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은 12월 10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강창일 의원(사천)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하기를 꺼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해 선거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278회 정기국회는 9일 회기가 마감돼, 이 법안개정안은 제279회 임시국회(기간은 12월 말까지)에서 상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기자

불황·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특별기획 ③ 생활속의 위빠사나 수행 -모원 법사 ▶ 7면

“술 향산화 100%”
청다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천년기 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고생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권에 치세요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 마음공부포럼 안내
현대인 위한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초대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허투루 투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평등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공부 나눔마당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2008년 12월 21일(일) 오후 1:30-4:00
■ 장소 한미음선원 안양 본원 4층 대강당
■ 주최 한미음선원 ■ 주관 한미음과학원 ■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031) 471-69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경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중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